

출산에서 노후까지...목포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본격화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 걸친 지원체계 구축으로 부담 완화 청년 정착·초고령 사회 대비 일자리·돌봄 지원 정책 강화

목포시가 출산에서 노후까지 책임지는 인구정책에 나섰다.

목포시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수도권 및 인접 지역으로의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구조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청년·노후를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출산·보육 분야에서는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 걸친 지원체계를 구축, 출산 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출산 준비 단계에서는 신혼부부·임산부 건강관리 지원과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을 돕고, 출산기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출산축하금, 첫만남이용권 지원으로 출산 초기

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또 양육기에는 영유아 건강검진과 국가예방접종 지원으로 산후·영유아 관리를 강화하고, 출생기본소득,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통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한다.

청년이 일하고 경협하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자립·문화생활을 연계한 청년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과 주거비 지원, 청년근속 장려금과 자산형성 사업 등을 통해 자립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목포청년센터 '누리'를 거점으로 취창업 및 직무·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의 삶의

기반을 강화한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돌봄·건강을 연계한 고령친화 정책도 추진한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과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목포형 통합돌봄을 통해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정주여건 개선, 다문화가구와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정책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을 구축한다는 게 목포시의 전략이다.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목포의 미래는 사람과 삶에 있다"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출산부터 노후까지 삶이 이어지는 인구 활력 도시 목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목포=문명성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최근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인구정책 관련 회의가 열렸다.

<목포시 제공>

편백숲 우거진 '달보드레농원' 해남 1호 우수 치유농장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호평 농촌진흥청 종합 평가 선정

해남 삼산면 달보드레농원이 제1호 '우수 치유농장'으로 선정됐다.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평가는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역량, 시설 안전성, 전문인력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한다.

달보드레농원은 편백숲이 우거진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명상, 허브 경작, 상임불 등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돕는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치유활동 공간의 체계적인 조성과 안전관리 체계를 갖췄는 등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인정받아 인증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해남군농업기술센터는 2021년 해남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23개 소 치유농장을 육성하고 있다.

치유농업연구회를 중심으로 치유농업 발전과



해남군 우수치유농업시설 인증제 1호 달보드레 농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7개 소를 추가할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지역 치유농업 활성화와 함께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이 기대된다"라며 "단계별 컨설팅과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해 우수 치유농업 시설을 지속해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암군, 먹거리·달빛 콘텐츠 관광객 체류 유도

식당 열고 야간관광 인프라 확충

영암군이 먹거리, 야간 달빛 콘텐츠 등으로 관광객 발길을 붙잡고 있다.

영암군에 따르면 왕인박사유적지는 대통령의 영암군에 따르면 왕인박사유적지는 대통령의 방문객이 평일에도 줄을 서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야간 콘텐츠 효과는 유적지 안에 머물지 않고 주변 상가와 식당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이 흐름을 확장하기 위해 '빈상가 재움 프로젝트'로 장산리푸줏간, 촌소도량, 모리담 등 지역 자원을 살린 음식점들을 잇달아 선보였다.

독천낙지거리리는 남도음식거리로 지정해 환경

개선과 콘텐츠 준비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먹고 떠나는 일회성 관광이 아니라, 다시 찾고 싶은 기억을 남기는 식도락 문화로 체험관광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달뜨는 월출산을 연상하게 만드는 야간 달빛 콘텐츠도 강화하고 있다.

군은 야간관광과 문화예술을 결합해 '밤이 있는 영암'을 만들고, 공연·전시·축제가 골목상권 소비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한 단계씩 쌓아가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그 체류가 지역 소비로 남아 재방문과 정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영암에서 일상이 더 참담하고 행복하게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환 기자 jbh@kwangju.co.kr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 '블루카본 잘피 숲' 조성

고금면 봉암 해역 6ha 중간 육성장

완도군이 잘피 중간 육성장을 조성하는 등 해양 기후변화 대응에 나섰다.

잘피 중간 육성장 조성 사업은 완도군과 한국수산자원공단(FIRA), 어촌계가 협력하여 추진하며, 지난해 10월 적지 조사를 통해 신지면 양천리와 고금면 봉암리 해역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사업 대상지에 잘피 씨앗을 파종 후 약 30cm 정도가 자라면 씨앗을 채취해 더 넓은 해역으로 옮겨 심을 예정이다.

완도군은 지난달에는 신지면, 고금면 6ha 해역에 잘피 씨앗 30만개를 파종했다.

잘피는 연안에 숲을 이루며 수산 생물의 산란·서식장을 제공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저장하는 '블루카본' (해양생태계를 통한 탄소 흡수원)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해양생태계 회복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잘피 이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잘피 분포량의 약 60%를 완도 해역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잘피 숲 조성으로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 생산성 향상 및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완도군은 그동안 민간 기업, 공단 등과 함께 바다 숲 확대에 힘써왔다.

2024년에는 효성기업과 협력해 13억원을 투입, 신지면 동고리 해역에 1.59㎢ 규모의 잘피 숲



바다 속에서 잘피 씨앗을 뿌리는 모습.

을 조성했으며, 한국전력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 완도읍 장다리 해역에 15만 주의 잘피 씨앗을 뿌렸다.

현재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생존율과 정착 상태를 점검 중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서울대학교 연구진과 '완도 잘피의 유전적 다양성 연구' 용역을 실시했으며, 잘피의 탄소 흡수 능력과 유전적 특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올해는 국비 18억원을 지원받아 소안면 미라리와 고금면 상정리 해역에 바다 숲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향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해조류가 탄소 흡수원인 '블루카본'으로 최종 승인되면 탄소 거래 제도·사업 등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진도군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진도군이 행안부가 주관하는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진도군은 이번 평가에서 평균 84.78점보다 6.31점 높은 91.09점을 획득했다. 이에 전년도 84.86점의 '보통' 등급에서 2단계 상승했다.

행안부가 매년 실시하는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사전정보공표 ▲원문공개 정보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등 5개 분야 12개 지표에 대해 정량·정성평가를 진행, 최우수

(20%), 우수(30%), 보통·미흡(50%) 등급을 부여한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진도군 관계자는 "군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군민 관심 사항을 공개하는 사전 정보 공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신속 처리 등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완도군, 병역 이행 청년에 '입영 지원금' ...1인당 10만원

완도군이 병역의무 이행 청년을 대상으로 '입영 지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병역 이행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에선 광양시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것이며, 군 단위 자치단체 중에선 최초다. 지원금 지급 요건은 신청일 기준 완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

주하다 입영하는 현역병이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을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군 복무 준비 과정에서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 지원 정책을 확대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해남군 공공숙박시설 '호텔 울돌소리' 성장세 주목

개관 3개월만에 손익분기점 넘어서 공공기관 숙박시설 혁신 모델 부상

해남군이 문제부 공모사업으로 조성한 '호텔 울돌소리'가 공공기관 숙박시설 추진 사업의 혁신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문을 연 울돌소리는 개장 첫 달인 10월 55.9%의 객실 점유율로 출발해 11월 57.8%, 12월 66.4%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지난달에는 77%를 기록하며 업계에서 손익분기점으로 간주하는 70% 선을 넘어서었다.

일반적으로 숙박시설은 인건비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 문제로 인해 최소 50객실 이상 규모가 돼야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호텔 울돌소리는 지하 1층·지상 3층, 32객실 규모라는 한계에도 전문적인 경영 기법을 도입해 개관 4개월 만에 이례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군은 자평했다.

우수영관광지내에 위치한 울돌소리는 30.4㎡의 소형부두 72.5㎡의 가족형의 32개 객실과 조식뷔페 및 연회가 가능한 레스토랑, 카페 등을 갖추고 우수영권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호텔전용 축구 인조구장과 3개의 이벤트홀도 있어 전자출연림의 방문과 지역 행사 장소로도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출장과 업무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센터를 갖추고 있어 청년프리랜서나



해남의 호텔 울돌소리가 공공기관 숙박시설 추진 사업의 혁신 모델로 부상했다. 호텔 울돌소리 전경.

1인 사업자 등이 원격 근무할 경우 체류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전남도 블루위케이션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울돌소리의 성공적인 개관·운영의 비결은 민관의 긴밀한 협력에 있다.

위탁운영사(대일인태서널하스피탈리티)는 전국적인 체인을 보유한 호텔 전문 중견기업으로, 예약 네트워크와 영업력을 활용한 경영노하우를 최대로 발휘해 호텔 경영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은 우수영권의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기존 우수영유스호스텔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홍보 지원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다.

전해의 관광 자원으로 한몫했다.

호텔 인근에는 명랑대첩의 역사적 현장인 울돌목을 비롯해 명랑대첩해전사기념관, 법정스님 생가가 있다.

또 해남과 진도 사이를 잇는 울돌목해상케이블카와 스카이워크 등 체험형 콘텐츠가 밀집해 있어 체류형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해남군 관계자는 "호텔 울돌소리가 빠르게 자리를 잡으면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지역 관광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전문 운영사와 협력해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목포신항 해상풍력발전 전진기지 조성 박차

융복합 플랫폼 센터에 집적화 속도

목포시가 목포신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산업 전진기지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목포시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해상풍력 물류시스템 연구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357억원이 투입돼 지난해 목포신항에 완공된 해상풍력 융복합 플랫폼 센터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부터 운영·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목포신항 1단계 항만배후단지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있다. 이 곳은 기자재 생산·조립·해상운송을 지원할 수 있는 약 15만평(49만5000㎡) 규모의 배후부지가 확보돼 있다.

목포시는 이를 기반으로 해상풍력산업 집적화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해상풍력 전용 철재부두(3만㎡) 1선석과 2단계 항만배후단지(23만 8000㎡) 조성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kwangju.co.kr

해상풍력은 전 세계적으로 RE100 확산과 탄소 중립 정책이 강화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높은 발전 효율과 대규모 전력 생산이 가능해 미래 친환경 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전략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목포시는 해상풍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 불확실성 해소와 안정적인 사업물량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 및 전남도와 협력해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다.

향후 목포신항 선석 추가 확보와 민자부두 조성이 완료될 경우 연간 2GW 이상의 해상풍력 사업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kwangju.co.kr